[그리스도인의 관계]

# 1장 평화롭게 지내는 방법 2015.04.30.(목)

골 3:15 하나님의 화평이 너희 마음속에서 다스리게 하라. 너희도 그 화평에 이르도록 한 몸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으니 감사하는 자가 되라.
롬 14:19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을 이루는 일들과 서로를 세워 주는데 필요한 일들을 따를지니라.
성도를 향한 마귀의 사역은 바로 성도들이 서로 미워하고 다투고 질투하고 분열하게 만드는 것이다. 성경은 화평을 추구하고 따라가라고 말씀하며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 중 하나가 바로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평화롭게 지내는 일이다. 교회의 분열의 원인은 결국 한 형제가 다른 형제에 대해, 한자매가 다른 자매에 대해 화가 난 것으로 시작하여 결국 모든 사람이 볼 수 있을 정도 커져버리게 되는 것이다.

**1. 모든 사람과 화평하게 지내야겠다는 확고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롬 12:18 가능하다면 너희가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화평하게 지내라.
다른 사람과 다투고 논쟁하고 분열하는 것은 너무 쉬운 일이나 나와 생각이 다르고 의견이 다른 사람들과 평화롭게 지내는 것은 가장 어려운 일이다.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해 주고 그의 부족함을 참아주어야 한다. 뒤에서 그에 대해 잘못을 지적하기나, 험담하기는 쉽지만, 그를 위해 기도하기는 어렵고 그를 참아주기는 더 어렵기 때문이다.

**2. 교제의 기준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딤전 6:3~5 만일 어떤 사람이 다른 식으로 가르치고 온전한 말씀들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들과 하나님의 성품에 따른 교리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오히려 논쟁과 말다툼을 좋아하는 자니라. 이로써 시기와 다툼과 욕설과 악한 추측이 생기며 또 마음이 부패하고 진리가 없어 이득이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비뚤어진 언쟁이 생기나니 너는 그러한 자들로부터 떠나라.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이나 이단과는 교제를 나눌 수 없다. 그러나 본질적이지 않는 문제로 교회를 떠나거나 교제를 끊는 것은 잘못이다. 모든 문제에 대해 다같은 생각을 가질 수는 없으나 의견이 다르다 해서 교제를 나누지 않는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다.

**3. 다른 형제 자매에 대해 인내해야 합니다.**
잠16:32 분노하기를 더디 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영을 다스리는 자는 도시를 취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부모에게 가장 필요한게 바로 인내이듯 교회도 마찮가지로 서로가 서로에 대해 참아주고 인내해야 한다. 누군가 문제를 일으켰거나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즉시 그 문제를 바로 잡으려하지 말고 기도하며 먼저 성령님께 자신을 내어 드린다면 성령님께서 우리보다 훨씬 더 쉽고 정확하고 적절하게 문제를 풀어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참아주셨던 것만큼 다른 형제를 참아주고, 나에게 기회를 주셨던 것 만큼 기회를 주며, 은혜를 베푸셨던 것만큼 은혜를 베풀어 보라.

**4. 부드럽게 말해야 합니다.**
잠15:1 부드러운 대답은 진노를 돌이키거니와 가혹한 말들은 분노를 일으키느니라.
거칠게 말하는 것은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하며 우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부드럽게 말해야 한다. 말하는 내용보다 말하는 방법으로 인해 분열이 생기는 경우가 많다. 서로를 세워주는 말을 하며 상처를 주는 말을 하기보다 상대방이 나의 말로 인해 영적으로 건강해지도록 지혜롭게 말하도록 해야 한다.

**5. 하나님의 법칙에 따라야 합니다.**
살전 5:12~13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감독하며 너희에게 훈계하는 자들을 알고 그들의 일로 인하여 사랑 안에서 그들을 매우 귀중히 여기라. 또 너희끼리 화목하게 지내라.
말씀의 사역자들을 귀중하게 여기고 나서 화목하게 지내라고 말씀한다. 가정이나 학교나 회사나 국가에서 평화롭게 지내려면 가정과 학교와 회사와 국가를 인도하는 사람을 귀중하게 여겨야 한다. 그래야 평화가 있으며 교회를 인도하는 사람을 귀중하게 여기고 존중해야 평화롭게 교회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그리스도의 몸에서 한 부분을 이루고 있는 것처럼 교회의 인도자가 그리스도의 한 부분을 이루기 있기 때문이다.

**6. 용서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골3:13 누가 누구와 다툴 일이 있거든 서로 참고 서로 용서하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며.
지금 용서하는 위치에 있을지 몰라도 언젠가 당신도 누군가에게 용서 받아야 할 위치에 있게 될지도 모르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완전히 용서하시며 한번 용서하신 것은 다시는 이야기 하지 않으신다.

**7.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charity)은 성경적인 용어로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 지체들이 나누는 특별한 사랑이다.
골 3:14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입으라. 사랑은 완전하게 매는 띠(the bond)이니라
“매는 띠”가 영어로는 본드(bond)입니다.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는 것은 지식도, 교히도, 같은 옷을 입는 것도, 같은 성경을 사용하는 것도 아닌 사랑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보이는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거짓말일 뿐이다.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 그 사람이 변하지 않을지 몰라도 최소한 그 사람에 대한 나의 마음은 변할 것이다.

# 2장 바른 관계를 위한 법칙 (6가지) 2015.05.07.(목)

그리스도인들은 구원의 문제나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성경에서 답을 찾으려하지만 인간관계에 대해서는 다른 곳에서 답을 찾으려 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성경을 기록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황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포함한 모든 것을 알고 계시며 주님의 뜻대로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생활하도록 돕고 싶어 하신다.

**1. 다른 사람보다 자신을 낮춰야 합니다.**

"어떤 일도 다툼이나 헛된 영광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생각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더 낫게 여기며"

예수님께서는 모든 창조물들로부터 섬김을 받아야 마땅한 분이 오히려 다른 사람을 섬기시며 자신의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이 참된 사랑이 바른 관계를 형성하는 가장 근본적인 원칙이며 우리보다 훨씬 지혜로우시고 훨씬 능력이 많으신 주님께서 우리와 관계를 맺고 교제를 나누기 위해 자신을 낮추신 것처럼 자신을 낮추고 다른 사람의 불완전함을 인정하고 용납해야 한다.

**2. 아무런 반응이 없어도 다른 사람보다 자신을 낮춰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과 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그가 나에게 무엇을 해 줄 수 있는가를 생각해서는 안되며 오히려 그 사람 자체를 사랑하고 원하고 돌봐주려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다른 사람과 교제를 나누고 관계를 맺을 때 유익을 얻기 위해 즉, 그 사람의 재능이나 소유를 보고 관계를 맺지 말고 그 사람 자체로 인해 관계를 맺으며 그 사람의 행복을 위해 섬길 때 아름다운 관계가 될 것이다.

**3.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 것처럼 서로 용서해야 합니다.**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인하여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만약 당신을 거짓고소로 법정에 세우고, 눈을 가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며, 수염을 뿌리째 뽑아버리고, 가시로 관을 만들어 머리에 씌우고, 등에 깊은 상처가 나도록 채찍질을 하고, 십자가에 못을 박고, 옆구리를 창으로 찌르다면 어떻겠는가? 그런데 성경에 의하며 당신과 나의 죄가 예수님이 이러한 일을 당하도록 했습니다. 이런 고난을 받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저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자신을 첫째 자리에 두지 않고 자신이 하나님께 용서 받은 만큼 다른 사람을 용서해주어야 합니다.

**4. 과거의 잘못은 잊어버려야 합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가버렸기에 되돌릴 수 없기에 과거의 잘못을 계속 붙들지 말고 구원받은 우리들은 과거와는 다른 식으로 사는 법을 배우고 다른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한다. 과거의 잘못들은 모두 뒤로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앞으로 나아가야 하며 완벽하지 않은 우리들은 죄를 지을 때마다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 죄를 자백하고 앞으로 전진해 나가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을 수 있다.

**5. 모든 관계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삼위일체로 존재하시며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렇게 세분은 한 하나님입니다(요일5:7). 또한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진 셋으로(영,혼,몸) 이루어진 하나의 존재입니다. 각기 다른 세 면이 있지만 트라이앵글이 하나이듯 모든 관계에 있어서도 남편과 아내 두 사람만으로는 참 된 부부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형제와 형제등 모든 관계의 중심에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셔야 하며 당신이 누구와 어떤 관계를 맺든, 그 관계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다면 세 겹줄은 빨리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6. 다른 사람을 고려해 주어야 합니다.**

마음은 감정과 애착이 있는 곳이다. 내 생각이나 감정이나 실행은 항상 다른 사람을 고려해 주어야 한다. 우리의 마음과 감정과 활동이 자신이 아닌 상대방을 위한다면 모든 관계는 달라질 것이다.

만일 당신이 원하는 모든 일을 이루고 이 세상에서 큰 성공을 거둔다고 해도 영원히 함께 하게 될 사람들과의 관계를 완전히 망쳐버린다면 그게 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이며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이다.

# 3장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문제에 관해 2015.05.14.(목)

“오 회중들아, 너희가 참으로 의를 말하느냐? 오 너희 사람들의 아들들아, 너희가 올바르게 판단하느냐? 시 58:1
위 말씀을 통해 두 가지 질문을 자신에게 해보라.
**“참으로 의를 말하느냐?”** 우리의 혀를 어떻게 사용하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혀를 어떻게 사용하는 것을 원하시는가? 주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가르치고 격려하고 권면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데 우리의 혀를 사용하기를 원하신다.
**“너희가 올바르게 판단하느냐?”** 성경을 제대로 읽을 줄 모르는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을 지지해 준다고 생각하는 일부만 인용하여 “판단하지 말라”(마7:1, 눅 6:37)는 말만 되풀이 한다. 인간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시58편에 판단하라고 한다. 문제는 바르게 판단하느냐이다. 기준이 사라진 지금의 시대에 남자들이 여자처럼 옷을 입고 아이들은 부모에게 대들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이 교회에 가지 않고 성경도 읽지 않는다.

“판단하지 말라”는 말을 하는 사람이 간과하는 두 가지는 첫째, 모든 사람이 판단을 받게 되는 것이며 둘째, “다른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된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이 자신을 판단한다고 판단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점이다.
성경은 우리가 바르게 판단해야 한다고 명령하고 있으며 우리는 판단을 해야 한다. 판단을 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바르게 판단하느냐, 잘못 판단하느냐이다.

**1. 모든 것을 판단해야 합니다.**
법정에서 판사는 재판을 하면서 옳고 그름을 가리듯 우리의 인생은 무엇이 옳고 그른지 판단으로 가득 차 있다.
영적인 사람은 흘러가는 대로 인생을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명확한 판단을 내리며 산다. 물질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예,집을 사는 경우) 꼼꼼히 확인하지만 성경이나 교회, 교제에 있어서는 아무런 기준없이 성경을 보고, 교회에 다니고, 교제한다. 모든 것을 판단하되 제대로 판단하고 또한 판단기준인 성경 말씀이 무엇이라고 하는지 잘 알고 성경을 통해 판단해야 한다.

**2. 바르게 판단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바르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면 누구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으며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판단 받고자 한다. 바르게 판단 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바르게 판단할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구원받은 사람들의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신의 생각대로 하려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상충되는 자신의 방법대로 살면서 성경적인 교회와, 성경적인 설교, 성경적인 교제를 거부한다. 만일 목사가 자신을 판단하고 비성경적인 언행을 지적하면 목사가 사랑이 없다고 하고 싫어한다.

**3. 의로운 판단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겉모양으로 판단하지 말고 의로운 판단으로 판단하라”(요 7:24)
보이는 것을 기초로 판단해서는 안되며 마음(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과 같이 의로운 판단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판단해야한다. 겉모양, 느낌이나 감정, 이익이나 친분, 선호도를 근거로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판단하면 바른 판단을 할 수 있다. 말씀에 근거하여 모든 것을 판단하는 것은 옳은 것이며 하나님 말씀과 일치하는 것은 옳고 일치하지 않은 것은 잘못된 것이다.

**4.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판단 받게 됩니다.**
판단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의롭게 판단하고 있는가가 문제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심판을 받게 되며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의해 판단을 받을 것이다. 인생의 가장 큰 시험을 치르기 위해 성경을 공부해야하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펴서 읽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는 성경에 의해, 성경대로 심판을 받고 판단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5. 주님께 판단 받는 것에 비하면 사람에게 판단 받는 것은 작은 일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판단을 받거나 사람의 판단으로 판단을 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니라. 참으로 나는 내 자신을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나는 판단 받을 아무것도 스스로 알지 못하노라. 그러나 이로써 내가 의롭게 되지는 아니하였나니 오직 나를 판단하시는 분은 주시니라” (고전 5:3~4)
위의 말씀은 사도바울이 사람의 판단은 신경 쓰지 않겠다는 것으로 그는 사람의 판단보다 주님의 판단을 훨씬 중요하게 여겼고 다른 사람의 비평에 신경을 쓰지 않겠다는 것이다. 우리는 언젠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서서 우리가 사용한 돈, 시간, 언어, 인생에 대해 판단을 받게 될 것이다.

**6. 사람의 외모를 중시하지 말고 판단해야 합니다.**

우리는 의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판단해야 한다.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과 싫어하는 사람, 다른 사람의 아이와 내 아이, 친하고 가까운 사람의 죄와 친하지 않고 미워하는 사람의 죄, 좋아하는 정치인과 싫어하는 정치인에 대한 엇갈린 판단, 이러한 것은 의로운 판단이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느 누구의 외모나 지위나 소유도 상관하지 않으시고 성경대로 모든 사람을 동일한 기준으로 심판하실 것이다.

**7. 자신을 판단해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자신을 판단하려 하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고전 11:31)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과 자신의 인생이 일치하는지,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 살고 있는지 스스로 점검해보고 판단하여 우리 자신을 판단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은 것은 죄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미리 판단하고 심판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다.

**8.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동일한 기준으로 판단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판단하며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동일한 기준으로 자신을 판단해야 한다.

우리가 어떤 죄를 지은 사람을 판단한다면 우리는 그것이 죄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동일한 죄를 지으면 우리는 결국 스스로 정죄하는 것이다.

**9. 다른 형제의 길에 걸림돌을 두었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거룩하지 않고 경건하지 않은 것이나 진리와 타협한 것으로는 마음과 생각을 건전하게 지킬 수 없다. 이세상의 기준을 따르고 용납하다 보면 결국 교회 안으로 죄가 들어오게 된다. 두마음을 품고 한 눈으로는 하나님을 보지만 다른 한쪽 눈으로는 세상을 본다면 제대로 판단 할 수 없게 된다.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믿는다면 모든 말과 행위와 생각에 대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회계보고를 해야한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의 인생은 지금과 완전히 달라질 것이다. 당신의 인생이 세상 사람들의 인생과 별로 다르지 않다면 당신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진정으로 믿지 않기 때문이다.